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의 가치와 전망

민경식*

1. 들어가는 말

버려진 땅, 이집트의 건조한 사막은 인류 유산의 보고(寶庫)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 남부 이집트 사막의 흙먼지에 싸인 채 십 수 세기 동안 땅 속 어둠에 파묻혀 있던 “보물”이 빛을 보게 되었다. 영국의 그렌펠(B. P. Grenfell)과 헌트(A. S. Hunt)가 중심이 된 발굴 팀은 1896년-1897년 겨울에 이집트 나일 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옥시링쿠스(Oxyrhynchus)¹⁾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에서 막대한 양의 고대 사본들이 발견되었다.²⁾ 이곳은 오늘날 엘바나사(el-Bahnasa)로 알려진 곳인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곳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점으로, “요셉의 수로”(Bahr Yussuf = Joseph's Canal)라고 불리는 나일 강의 지류 옆에 위치하여 있으며, 고대에는 이 지역에 교회와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비가 오지 않는 기후로도 유명한 이곳이야말로 “인류의 보화”가 손상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잘 보존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창고였다. 이미 원주민들이 골동품상들을 통해 이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본들을 서방의 도서관 등에 간헐적으로 내다 판 일이 있었지만, 그렌펠과 헌트의 집중적인 발굴로 인해서 비로소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굴한 사본들을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잘 포장하여 영국의 옥스퍼드(Oxford)로 가져갔다. 그곳에서 포장을 풀고, 사본들을 하나하나씩 연구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출판하였는데, 이 시리즈는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³⁾

* 연세대학교 시간강사, 신약학.

- 1) 옥시링쿠스(Oxyrhynchus)라는 이 마을의 이름은 “코가 뾰족한 물고기”(Sharp-nosed Fish)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숭배를 받던 신 시트(Sit)가 나일강의 신성한 물고기로 성육하였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와 로마시대 때에 크게 번영하였던 이 도시는 당시 이 지역의 수도였다.
- 2) 이때가 1차 발굴인데, 그렌펠과 헌트의 발굴 작업은 1907년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로도 이 지역에 대한 발굴 작업은 지속되었다.
- 3) 2007년 10월 15일 현재, 총 71권의 『옥시링쿠스 파피루스』(Oxyrhynchus Papyri)가 출판되었다. 제 1권은 1998년에 출판되었고, 마지막 71권은 2007년에 출판되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판되면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본들이 소개될 것이다.

2.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는 무엇인가?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발견된 사본들이 하나하나씩 출판될 때마다, 각 사본들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각 일련번호 앞에는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옥시링쿠스 파피루스”(P. Oxy.)라는 고유한 이름이 붙는다. 가령, 여기서 발견되어 최초로 출판된 사본은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번 사본(P. Oxy. 1)이 되며, 1500번째로 출판된 사본은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500번 사본(P. Oxy. 1500)이 된다. 2007년 10월 15일 현재, 가장 마지막으로 출판, 발표된 사본은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4837번 사본(P. Oxy. 4837)인데, 이것은 기원후 578년 2월 1일 날짜로 체결된 계약서로 2007년에 출판되었으며,⁴⁾ 현재 옥스퍼드의 새클러 도서관(Sackler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이번에 “사해사본과 기독교의 기원”에서 전시되는 세 개의 신약성서 사본들도 모두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것들로, 각각의 고유 이름은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077번(P. Oxy. 1077),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169번(P. Oxy. 1169),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227번(P. Oxy. 1227)인데, 여기 덧붙은 번호는 각 사본이 출판된 순서를 가리킨다.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사본번호”는 그레고리 번호⁵⁾를 가리킨다.

| P. Oxy. | 사본번호 | 연대 | 내용 | 소장 | 비고 |
|--------------------|------|-------|--------------------------|---------------------------|----|
| 1077 ⁶⁾ | | 6세기 | 마 4:23-24 | Allentown, Pennsylvania | 부적 |
| 1169 | 0170 | 5/6세기 | 마 6:5-6, 8-10, 13-15, 17 | Princeton Theol. Seminary | |
| 1227 | ⲑ21 | 4/5세기 | 마 12:24-26, 32-33 | Allentown, Pennsylvania | |

4) N. Gonis, “n. 4837”, *Oxyrhynchus Papyri*, LXXI.

5) 20세기 초에 그레고리(Caspar René Gregory, 1846-1917)는 벡슈타인(J. J. Wettstein)이 세운 체계를 토대로 하여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본 명명법을 체계화하였다. 파피루스 사본은 “ⲑ”로 표시하였고(ⲑ1, ⲑ2, ⲑ3 등), 대문자 사본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숫자 “0”을 붙여 표시하였으며(01, 02, 03 등), 소문자 사본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였다(1, 2, 3 등). 또한 성구집은 이탤릭체 “P”을 숫자 앞에 붙였다(11, 12, 13 등). 이러한 체계에 따라 사본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그레고리 명명법이라고 하며, 이 번호를 그레고리 번호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독일 뮌스터(Münster)에 있는 “신약성서본문연구소(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에서 번호를 수여하고 있다.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83 이하를 보라. 또한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4), 32 이하를 보라.

6) 이 사본은 그레고리 번호가 없다. 신약성서 사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대개 신약성서의 내용들을 보도하는가? 그렇지않다. 여기서 발견된 사본 가운데 약 1%만이 신약성서 사본이며, 나머지는 거의 계약서나 개인적인 편지, 소설, 또는 각종 공문서 등 일반 문서에 해당한다. 물론 신약성서 사본 외에도 성서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사본들이 있기도 하다. 우선 스무 개 남짓의 구약성서 단편들을 꼽을 수 있다. 2세기 중반의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656번(P. Oxy. 656)은 창세기 일부를 담고 있으며, 4세기 중반의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779번(P. Oxy. 1779)에는 시편 1편이 들어 있다. 율기 42:11-12가 들어 있는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3522번(P. Oxy. 3522)은 매우 초기 사본으로 1세기 중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성서 밖의 문헌들 가운데서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10개 가까이 되는 구약 외경 사본들과 30개 가까이 되는 신약 외경 사본들이다. 신약의 외경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헤르마스의 목자》로 10개나 되는 사본들이 여기에 속한다(P. Oxy. 404, 1172, 1599, 1782, 1783, 3526, 3527, 3528, 4705, 4706, 4707). 《도마복음서》(P. Oxy. 1, 654, 655)와 《야고보복음서》(P. Oxy. 3524), 《마리아복음서》(P. Oxy. 3525), 《베드로복음서》(P. Oxy. 2949, 4009) 등과 같은 외경 복음서 사본들도 있고, 《바울과 테클라 행전》(P. Oxy. 6), 《베드로행전》(P. Oxy. 849), 《요한행전》(P. Oxy. 850) 등과 같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글들도 있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복음서들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840번(P. Oxy 840)과 1224번(P. Oxy. 1224)이 유명하다. 또한 이 외에도 신약사본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본들이 있는데,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077번(P. Oxy. 1077)은 마태복음 4:23-24의 내용이 들어 있는 부적이며, 4010번(P. Oxy. 4010)은 마태복음 6:9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다.

그렇다면,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신약성서 사본은 얼마나 되는가?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사본들 가운데, 2007년 10월 15일 현재까지 출판된 사본들 가운데 신약성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모두 57개이다.⁷⁾ 아래의 표는 그 목록이다.

| P. Oxy | 사본 번호 | 연대 | 내용 | 소장 | 비고 |
|--------|-------|-----|--|-----------------------|------------------------|
| 2 | Ⓟ1 | 3세기 | 마 1:1-9, 12, 14-20 | Univ. of Pennsylvania | |
| 3 | 069 | 5세기 | 막 10:50-51; 11:11-12 | Chicago Univ. Libr. | |
| 208 | Ⓟ5 | 3세기 | 요 1:23-31, 33-40; 20:11- 17, 19-20; 22-25 | British Libr. | cf. 1781 ⁸⁾ |
| 209 | Ⓟ10 | 4세기 | 롬 1:1-7 | Harvard Univ. Semitic | |

7) P. Oxy. 1077과 P. Oxy. 4010까지 포함시키면 총 59개가 된다.

| | | | | | |
|------|------|-------|---|------------------------------|-------------------------|
| | | | | Mus. | |
| 401 | 071 | 5/6세기 | 마 1:21-24; 1:25-2:2 | Harvard Univ. Semitic Mus. | |
| 402 | Ⓟ9 | 3세기 | 요일 4:11-12, 14-17 | Harvard Univ. Semitic Mus. | |
| 657 | Ⓟ13 | 3/4세기 | 히2:14-5:5; 10:8-22; 10:29 -11:13; 11:28-12:17 | British Libr. | scroll ⁹⁾ |
| 847 | 0162 | 3/4세기 | 요 2:11-22 | Metropolitan Mus. of Art | |
| 848 | 0163 | 5세기 | 계 16:17-20 | Chicago Univ. Libr. | |
| 1008 | Ⓟ15 | 3세기 | 고전 7:18-8:4 | Egyptian Mus. | cf. 1009 ¹⁰⁾ |
| 1009 | Ⓟ16 | 3세기 | 빌 3:10-17; 4:2-8 | Egyptian Mus. | cf. 1008 |
| 1078 | Ⓟ17 | 4세기 | 히 9:12-19 | Cambridge Univ. Libr. | |
| 1079 | Ⓟ18 | 3/4세기 | 계 1:4-7 | British Libr. | |
| 1080 | 0169 | 4세기 | 계 3:19-4:3 | Princeton Theol. Seminary | |
| 1169 | 0170 | 5/6세기 | 마 6:5-6, 8-10, 13-15, 17 | Princeton Theol. Seminary | |
| 1170 | Ⓟ19 | 4/5세기 | 마 10:32-11:5 | Bodleian Libr. | |
| 1171 | Ⓟ20 | 3세기 | 약 2:19-3:9 | Princeton Univ. Libr. | |
| 1227 | Ⓟ21 | 4/5세기 | 마 12:24-26, 32-33 | Muhlenberg Coll. | |
| 1228 | Ⓟ22 | 3세기 | 요 15:25-16:2, 21-32 | Glasgow Univ. Libr. | |
| 1229 | Ⓟ23 | 3세기 | 약 1:10-12, 15-18 | Univ. of Illinois | |
| 1230 | Ⓟ24 | 4세기 | 계 5:5-8; 6:5-8 | Andover Newton Theol. School | |
| 1353 | 0206 | 4세기 | 벧전 5:5-13 | United Theol. Seminary | |
| 1354 | Ⓟ26 | 600년경 | 롬 1:1-16 | Southern Meth. Univ. | |
| 1355 | Ⓟ27 | 3세기 | 롬 8:12-22, 24-27; 8:33- 9:3, 5-9 | Cambridge Univ. Libr. | |
| 1596 | Ⓟ28 | 3세기 | 요 6:8-12, 17-22 | Pacific School of Religion | |
| 1597 | Ⓟ29 | 3세기 | 행 26:7-8:20 | Bodleian Libr. | |
| 1598 | Ⓟ30 | 3세기 | 살전 4:12-13, 16-17; 5:8- 10, 12-18, 25-28; 살후 1:1 -2 | Ghent Univ. Libr. | |
| 1780 | Ⓟ39 | 3세기 | 요 8:14-22 | Ambrose Swasey Libr. | |
| 1781 | Ⓟ5 | 3세기 | 요 16:14-30 | British Libr. | cf. 208 |
| 2157 | Ⓟ51 | 400년경 | 갈 1:2-10, 13, 16-20 | Sackler Libr. | |

| | | | | | |
|------|------|-------|---|---------------|-------------------------|
| 2383 | Ⓟ69 | 3세기 | 눅 22:41, 45-48, 58-61 | Sackler Libr. | |
| 2384 | Ⓟ70 | 3세기 | 마 2:13-16; 2:22-3:1, 11:26-27; 12:4-5; 24:3-6, 12-15 | Sackler Libr. | |
| 2385 | Ⓟ71 | 4세기 | 마 19:10-11, 17-18 | Sackler Libr. | |
| 2683 | Ⓟ77 | 2/3세기 | 마 23:30-39 | Sackler Libr. | cf. 4405 ¹¹⁾ |
| 2684 | Ⓟ78 | 3/4세기 | 유 4-5, 7-8 | Sackler Libr. | |
| 3523 | Ⓟ90 | 2세기 | 요 18:36-19:7 | Sackler Libr. | |
| 4401 | Ⓟ101 | 3세기 | 마 3:10-12; 3:16-4:3 | Sackler Libr. | |
| 4402 | Ⓟ102 | 3/4세기 | 마 4:11-12, 22-23 | Sackler Libr. | |
| 4403 | Ⓟ103 | 2/3세기 | 마 13:55-56; 14:3-5 | Sackler Libr. | |
| 4404 | Ⓟ104 | 2세기 | 마 21:34-37; 43, 45 | Sackler Libr. | |
| 4405 | Ⓟ77 | 2/3세기 | 마 23:30-39 | Sackler Libr. | cf. 2683 |
| 4406 | Ⓟ105 | 5/6세기 | 마 27:62-64; 28:2-5 | Sackler Libr. | |
| 4445 | Ⓟ106 | 3세기 | 요 1:29-35, 40-46 | Sackler Libr. | |
| 4446 | Ⓟ107 | 3세기 | 요 17:1-2, 11 | Sackler Libr. | |
| 4447 | Ⓟ108 | 3세기 | 요 17:23-24; 18:1-5 | Sackler Libr. | |
| 4448 | Ⓟ109 | 3세기 | 요 21:18-20; 21:23-25 | Sackler Libr. | |
| 4494 | Ⓟ110 | 4세기 | 마 10:13-15, 25-27 | Sackler Libr. | |
| 4495 | Ⓟ111 | 3세기 | 눅 17:11-13, 22-23 | Sackler Libr. | |
| 4496 | Ⓟ112 | 5세기 | 행 26:31-32; 27:6-7 | Sackler Libr. | |
| 4497 | Ⓟ113 | 3세기 | 롬 2:12-13, 29 | Sackler Libr. | |
| 4498 | Ⓟ114 | 3세기 | 히 1:7-12 | Sackler Libr. | |
| 4499 | Ⓟ115 | 3/4세기 | 계 2:1-3, 13-15, 27-29; 3:10-12; 5:8-9; 6:5-6; 8:3-8, 8:11-9:5, 7-16; 9:18-10:4; 10:8-11:5, 8-15, 11:18-12:5, 8-10, 12-17, 13:1-3, 6-16; 13:18-14:3, 5-7, 10-11, 14-15, 14:18-15:1, 4-7 | Sackler Libr. | |
| 4500 | 0308 | 4세기 | 계 11:15-18 | Sackler Libr. | |
| 4803 | | 3세기 | 요 1:21-28, 38-44 | Sackler Libr. | |
| 4804 | | 4세기 | 요 1:25-28, 33-38, 42-44 | Sackler Libr. | |
| 4805 | | 3세기 | 요 19:17-18, 25-26 | Sackler Libr. | |
| 4806 | | 4/5세기 | 요 21:11-14, 22-24 | Sackler Libr. | |

위의 표에서 마지막 4개의 사본에는 옥시링쿠스 사본 번호만 붙어 있을 뿐, 그레고리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것들이 극히 최근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에 학계에 정식으로 발표가 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4803번(P. Oxy. 4803)부터 4806번(P. Oxy. 4806)까지는 미처 그레고리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비평본¹²⁾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¹³⁾

그런데 위의 표에서 소개된 사본들 가운데 “실제로” 파피루스 사본은 46개이

-
- 8)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781번(P. Oxy. 1781 = $\mathfrak{P}5$)을 보라.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208번(P. Oxy. 208)과 1781번(P. Oxy. 1781)은 하나의 코텍스에서 나온 단편들이다. 208번은 1899년에 출판되었고, 약 20여 년 후인 1922년에 같은 코텍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1781번이 출판되었다. 1781번에 포함된 부분은 요한복음 16:14-30이다.
- 9) 대다수의 신약성서 사본들은 코텍스 형태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 형태로 된 신약 사본들은 매우 특이한 것들이다. 두루마리로 알려진 신약성서 파피루스 사본들은 $\mathfrak{P}12$, $\mathfrak{P}13$, $\mathfrak{P}18$, $\mathfrak{P}22$ 이렇게 총 4개이며, 나머지는 다들 코텍스 형태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유대교의 경전 형태이자 가장 일반적인 문서 형태인 두루마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책 형태인 코텍스를 선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보라. H. Y. Gamble, *Books and Readers in the Early Church: A History of Early Christian Texts* (New Haven; London: Yale Univ. Press, 1995), 49 이하를 보라. 3세기 이전의 사본들 가운데 코텍스 형태의 책은 2%에 불과한 반면, 기독교 문헌들은 거의 다 코텍스 형태이다. C. H. Roberts and T. C. Skeat, *The Birth of the Codex* (London: Oxford Univ. Press, 1983), 37의 표를 보라. 이 표는 그레코-로마 사회에서의 각 시대별 두루마리 형태와 코텍스 형태의 점유율을 소개한다. 기독교인들이 코텍스 형태의 책을 선호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경식, “왜 같은 사본은 하나도 없는가?” 『기독교사상』 (2006년 3월호), 138-147, 특히 142 이하를 보라.
- 10) $\mathfrak{P}15$ (P. Oxy. 1008)과 $\mathfrak{P}16$ (P. Oxy. 1009)는 같은 코텍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본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P. W. Comfort and D. P. Barrett, eds., *The Text of the Earliest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New and Complete Transcriptions with Photographs*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2001), 95를 보라.
- 11) 1997년에 출판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4405번 사본(P. Oxy. 4405)은 일찍이 1968년에 출판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2683번 사본(P. Oxy. 2683 = $\mathfrak{P}77$ 참고)과 같은 코텍스에 속했던 것이다. 두 단편들은 같은 코텍스의 같은 면의 본문을 증거한다.
- 12)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은 다음의 두 권이다. K. Aland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이하 NTG²⁷); K. Aland et al. *Greek New Testament*,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이하 GNT⁴). 이 두 권의 비평본들은 그 본문이 같으며, 또한 다섯 명의 편집자들이 같은데, 그들은 독일의 바바라 알란트(Barbara Aland)와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 그리스의 요하네스 카라비도폴로스(Johannes Karavidopoulos), 이태리의 칼로 마티니(Carlo M. Martini), 미국의 브루스 메츠거(Bruce M. Metzger)이다. 다만 전자(NTG²⁷)는 성서 학자들의 성서연구를 위해 고안된 반면에, 후자(GNT⁴)는 성서 번역자들의 성서번역 작업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본문비평장치가 서로 다르다. 이 두 권의 비평본에 대한 사용 지침서로는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227-264를 보라.
- 13) NTG²⁷은 1993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개된 사본들을 본문비평장치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파피루스 사본의 경우를 보면, 당시에는 98번($\mathfrak{P}98$)까지만 본문비평장치 및 사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1년에 27판 8쇄가 나오면서, 99번($\mathfrak{P}99$)부터 116번($\mathfrak{P}116$)까지의 새로운 파피루스 사본들이 덧붙여졌다. 따라서 최근에 발표된 이 사본들도 곧 그레고리 번호를 부여받고 비평본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두 가지 이유로 57개의 조각들 가운데 11개가 빠지기 때문이다. 우선 8개(P. Oxy. 3, 401, 847, 848, 1080, 1169, 1353, 4500)는 파피루스가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파피루스 사본으로 분류할 수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라는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파피루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파피루스 사본은 아니라는 것이다.¹⁴⁾ 또 3개의 조각들(P. Oxy. 208과 1781 = $\mathfrak{P}5$, 1008과 1009 = $\mathfrak{P}15/16$, 2683과 4405 = $\mathfrak{P}77$)은 기존에 밝혀진 사본들과 동일한 코덱스에서 나온 곳으로 밝혀짐에 따라 각각을 추가적인 사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11개를 제외한 46개의 사본들이 옥시링쿠스에서 출토된 파피루스 사본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의 공헌

3.1. 옥시링쿠스에서 보드메르까지

1896-1897년 겨울 옥시링쿠스에서 다량의 파피루스 사본들이 출토되어 나오자, 신약학계는 이 고문서들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근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3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신약성서 사본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여기에 기록된 3세기 이전의 “초기 본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발굴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알고 있었던 가장 오래되었다는 신약성서 사본들은 4세기의 대문자 사본들이다. 티센도르프(Constantin von Tischendorf)가 시내 산 기슭의 성 카타린(St. Catherine) 수도원에서 1844년에 낱장들 일부를 발견하고 1859년에 나머지 본체를 극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는 시내사본(Codex Sinaiticus, \aleph)과 1475년에 바티칸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티칸사본(Codex Vaticanus, B)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본들이다. 물론 이 두 사본 역시 매우 오래된 고대의 사본들이기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옥시링쿠스에서의 발굴과 함께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인 3세기의 신약성서 사본들, 심지어는 2세기의 사본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이것들은 순식간에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다소 실망

14) 흔히들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들을 분류할 때, 크게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구집으로 나눈다. 사실 이러한 분류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나 사본 구분법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소개는 민경식,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사상』 (2006년 2월호), 134-142, 특히 139-142를 보라.

스러웠다. 새로 알려진 사본들이 거의 단편(斷片)¹⁵⁾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작은 조각들에 불과한 이러한 파피루스 사본들만으로는 신약성서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본문비평적인 관점에서 평가절하 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손바닥만한 단편 사본들을 적절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던 때이다.

하지만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단편사본들의 잇을 수 없는 공헌도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웨스트콧(B. F. Westcott)과 호르트(F. J. A. Hort)가 4세기 이후의 사본들을 기초로 재구성한 그리스어 본문¹⁶⁾이 실제로는 3세기 이전의 매우 우수한 본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사본들이 증명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원문”에 가까운 고대의 본문을 매우 잘 재구성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한다.

위에서 언급한 단편사본의 한계 때문에 파피루스 사본들에 대한 관심이 다소 수그러질 무렵, 다시 한 번 관심을 끄는 사본들이 학계에 발표가 되었는데, 바로 1930년대에 발표된 체스터 비티(Chester Beatty) 파피루스이다.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로 알려진 $\mathfrak{P}45$, $\mathfrak{P}46$, $\mathfrak{P}47$ 은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와는 달리 상당한 분량의 성서 본문을 가지고 있다. $\mathfrak{P}45$ 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mathfrak{P}46$ 에는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가 포함되어 있다. $\mathfrak{P}47$ 에는 요한계시록의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mathfrak{P}45$ 가 큰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본이 20세기 초까지 유행하던 “지역본문가설”¹⁷⁾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마다 각기 다른 “본문유형”을 탄생시키고 발전시켰다는 가설은 그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¹⁸⁾ 또한 체스터 비

15) 단편(斷片)사본이란, 코텍스 형태(또는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단지 몇 조각만 남아 있는 사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장의 일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16) B. F. Westcott and F. J. A. Hort, *The New Testament in Original Greek*, vol. I (Cambridge; London: Macmillan, 1881). 이듬해인 1882년에 같은 제목으로 나온 제 2권은 그리스어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그들이 사용한 방법론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들이 제기한 본문비평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것들이 많다.

17) “지역본문가설”이란, 소위 “본문유형”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본문”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이 가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B. H. Streeter, *The Four Gospels: A Study of Origins: Treating of the Manuscript Tradition, Sources, Authorship, and Dates* (London: Macmillan, 1924)이다.

18) 대표적인 연구로는 후르타도(L. W. Hurtado)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mathfrak{P}45$ 가 결코 소위 “가이사라 본문유형”을 대표할 수 없으며, “가이사라 본문유형” 자체가 하나의 본문유형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L. W. Hurtado, *Text-Critical Methodology and the Pre-Caesarean Text: Codex W in the Gospel of Mark*, Studies and Documents 43 (Grand Rapids: Eerdmans, 1981).

티 파피루스가 증거하는 본문이 “원문”에 가까운 본문이 아닌, 변개된 본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일반화되면서, 이 사본들을 토대로 “원문”을 회복하려는 희망은 그 빛을 서서히 잃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초기의 필사가들의 필사 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본들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¹⁹⁾

20세기 중반, 파피루스 사본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고취시킨 사본들이 발표되었는데, 바로 스위스의 보드메르(Bodmer)가 취득하여 1950년대에 발표한 파피루스 사본들이었다. 이것들을 흔히 보드메르 파피루스라고 부르는데, 이 가운데 3개가 그리스어 신약성서 초기 사본들이다(¶66, ¶72, ¶75).²⁰⁾ 이 중 ¶66과 ¶75가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 두 사본에 대한 연구는 소위 “알렉산드리아 본문유형”이 4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편집된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입증해 주었으며,²¹⁾ 오늘날 우리가 재구성한 본문이 편집된 본문이 아닌, “원문”에 가까운 순수한 본문임을 인식하도록 해주었다. 이후로 초기의 본문이면서도 단편이 아닌 이 여섯 개의 사본들(¶45, ¶46, ¶47, ¶66, ¶72, ¶75)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다.²²⁾ 그러나 우리의 주제인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들은 그

19) 최근에 ¶45에 대한 논문 4편을 묶은 책이 나왔는데,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잘 반영한다. C. Horton, *The Earliest Gospels: The Origins and Transmission of the Earliest Christian Gospels - The Contribution of the Chester Beatty Gospel Codex ¶45* (London;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20) 물론 ¶73(Bodmer L)과 ¶74(Bodmer XVII)도 보드메르 파피루스에 속하는 사본이지만, 다른 것들과는 달리 ¶73과 ¶74는 7세기의 후대사본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대개 3세기-4세기에 걸쳐 양피지가 파피루스를 대신하게 되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7세기 이후까지도 파피루스가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73은 앞뒤로 단지 3절만을 포함하고 있는 단편사본이다. 양피지가 파피루스를 대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민경식, “대문자 사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사상』 (2006년 6월호), 174-184, 특히 176-177을 보라.

21) ¶75에 대한 마티니(C. M. Martini)의 연구는 소위 “알렉산드리아 본문유형”이 4세기에 편집된 것이 아니며, 이미 3세기에 존재하였던 본문임을 증명하였다. C. M. Martini, *Il problema della recensionalità del papiro Bodmer XIV*, *Analecta Biblica* 26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66), 특히 149 이하를 보라. 또한 G. D. Fee, *Papyrus Bodmer II (¶66): Its Textual Relationships and Scribal Characteristics*, *Studies and Documents* 34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68), 82-83을 보라. ¶66에 대한 피(G. Fee)의 연구는, 2세기 말에는 결코 학문적인 편집 과정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다.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편집된 본문유형에 대한 가설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본문유형”을 토대로 연구하는 본문비평학자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로 에프(Epp)를 들 수 있다. E. J. Epp, “The Significance of the Papyri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New Testament Text in the Second Century: A Dynamic View of Textual Transmission”, E. J., and G. D. Fee, eds.,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Studies and Documents* 45, (Grand Rapids: Eerdmans, 1993), 274-297을 보라. 이러한 “본문유형” 가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신약논단』 12권 (2005년 봄), 157-196, 특히 164-172를 보라.

22) J. R. Roysse,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Th. D. Dissertation

것들이 단편사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체스터 비티나 보드메르 파피루스만큼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단편사본들에 대한 연구 방법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이것들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3.2. 옥시링쿠스의 재발견

오늘날 공식적으로 등록된 파피루스 사본들은 118개이다.²³⁾ 방법론적으로 단편사본에 대한 적절한 연구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6개(Ⓟ45, Ⓟ46, Ⓟ47, Ⓟ66, Ⓟ72, Ⓟ75)를 제외한 100여 개의 파피루스들은 본문비평적 연구에서 소외되었다. 그런데 Ⓟ75가 하나의 코텍스를 대표하듯이, 손바닥만한 단편사본 하나도 하나의 코텍스를 대표한다고 가정할 때, 초기 본문의 특징이나 초기 필사자들의 필사습관을 규정하려는 연구가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즉, 100여 개의 코텍스 가운데 6개만을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방법론적인 약점을 드러냈던 것이다. 나머지 100여 개의 코텍스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면, 2-3세기의 초기 본문에 대한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원문”에 더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하고, 본문의 역사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수 년 전, 필자와 필자의 지도교수인 알란트(B. Aland)는 단편사본들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²⁴⁾ 이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오늘

(Graduate Theological Union, Berkeley, 1981). 저자는 이 논문을 다소 보완하여 최근에 같은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였다. J. R. Royse,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Grand Rapids: Eerdmans, 2007). 이 연구는 콜웰(E. C. Colwell)이 제시한 방법론으로 단편이 아닌 여섯 개의 사본들(Ⓟ45, Ⓟ46, Ⓟ47, Ⓟ66, Ⓟ72, Ⓟ75)을 연구한 것이다. 콜웰이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는 E. C. Colwell, “Method in Evaluating Scribal Habits. A Study of Ⓟ45, Ⓟ66, Ⓟ75”, *Studies in Methodology in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Leiden: Brill, 1969), 106-124를 보라.

23) 파피루스 사본에 대한 그레고리 번호가 118번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한 코텍스가 2개 혹은 3개의 번호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4와 Ⓟ64와 Ⓟ67, 이렇게 세 개의 사본들은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그레고리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이 사본들에 대한 연구 결과,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이것들이 하나의 코텍스에서 나온 것들로 밝혀졌으며, 오늘날 이 세 단편들은 하나의 사본으로 취급된다(Ⓟ4/64/67). 따라서 118개라는 숫자는 다소 줄어들게 된다.

24) B. Aland, “Kriterien zur Beurteilung kleinerer Papyrusfragmente des Neuen Testaments”, A. Denaux, e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Festschrift J. Delobel*,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16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1-13;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157-196. 필자의 학위논문은 단편사본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이것을 초기 마태복음 사본들에 적용한 것인데, 이 연구 결과를 다음의 책으로 출판하였다. K. S. Min, *Die früheste*

날까지 본문비평적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단편사본들, 특히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들을 본문비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며, 필사자들의 필사 습관을 규명하는 것에만 집중되던 기존의 연구 단계를 뛰어넘어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초기의 파피루스 사본들이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ⲡ104는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사본으로 1997년에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4404번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가로가 약 7센티미터, 세로가 약 5.5센티미터 되는 이 사본은,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그래서 이 사본에 포함된 본문의 양은 미미하지만(마 21:34-37, 43, 45), 더군다나 뒷면은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본이다.²⁵⁾

이 사본이 발표되기 이전에 재구성된 NTG²⁷⁾의 본문은 마태복음 21:44를 꺾쇠 괄호 안에 넣고 있다. 외적 판단기준에 따르면 이 구절이 “원문”에 속할 개연성이 높지만(ⲛ B C L W Z (Θ) 0102 f^{1,13} ⲙ lat sy^{c,p,h} co), 내적 판단기준에 따르면 후대의 첨가로 보이기 때문이다.²⁶⁾ 그런데 이러한 본문 결정은 ⲡ104가 알려지기 이전에 내려진 것이며, ⲡ104가 200년경의 매우 오래된 고대사본일 뿐만 아니라, 본문비평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²⁷⁾ 마태복음 21:44를 후대에 첨가된 이차적인 본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44절 전체를 본문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²⁸⁾ 이처럼 손바닥보다 작은 파편이 성서의 한 절을 빠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4.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연구의 과제와 전망

신약성서 사본은 약 25,000개 정도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원어인 그리스어로 된 것만 해도 5,700여 개에 이른다.²⁹⁾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의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3./4. Jahrhundert): Edition und Untersuchung, Arbeiten zur Neutestamentlichen Textforschung, 3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25) ⲡ104에 대한 본문비평적 연구로는 민경식, “마태복음서 21장 44절과 ⲡ104 (P. Oxy. 4404)”, 『종교와 문화』 11호 (2005년), 105-118을 보라.

26) 자세한 논의는 민경식, “마태복음서 21장 44절과 ⲡ104 (P. Oxy. 4404)”, 111-115, 특히 115를 보라. 또한 내적 판단기준(또는 내증)과 외적 판단기준(또는 내증)에 대한 개론적인 소개로는 바트 어만, 『성경예곡의 역사』, 민경식 역(서울: 청림출판, 2006), 238-247을 보라.

27) 민경식, “마태복음서 21장 44절과 ⲡ104 (P. Oxy. 4404)”, 108-110을 보라.

28) Ibid., 115를 보라.

『유대전쟁사』는 10-12세기에 필사된 사본 아홉 개와 약간의 번역본들이 있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의 『로마제국의 역사』(116년) 1-6권은 850년경의 사본이 하나, 11-16권은 11세기의 사본 하나, 7-10권까지는 아예 하나의 사본도 없는 것과 비교해보면,³⁰⁾ 신약성서 사본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릴 수 있으며, 또한 이 신약성서 사본들이 그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대의 것인지 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신약성서 사본들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18개의 파피루스 사본들인데, 이 가운데 42개³¹⁾ 사본(=45 조각), 즉 40% 가까이 되는 사본들이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되었다. 이것만을 보더라도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사본들이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양피지에 기록된 사본들까지 포함한다면,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57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 숫자는 앞으로 발표될 사본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옥시링쿠스에서 발굴된 사본의 총수가 약 5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³²⁾ 오늘날까지 약 110년에 걸쳐 약 4,800여 개의 사본들이 발표되었다면, 5만 개의 사본들은 앞으로 약 1,0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구, 출판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가운데 약 1%가 신약성서 사본으로 밝혀진다면, 앞으로 약 500개 가까운 신약성서 파피루스 사본들이 계속 출판되어 나올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파피루스 사본들이 총 118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500개의 파피루스 조각들은 실로 엄청난 양이며, 이 방대한 자료 덕분에 우리는 본문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폭넓게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의 “원문”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발굴된, 그러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만 해도 앞으로 약 1,000년 동안 사본학자들과 본문비평학자들을 수고롭게 할 것이며, 또한 성서의 본문에 끊임 없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29) 현재까지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에 대한 목록은 독일 뮌스터(Münster) 시에 있는 신약성서 본문연구소(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www.uni-muenster.de/NTTextforschung/INTF.html>).

30)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42, 각주 32. 또한 B. M. Metzger,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Grand Rapids: Eerdmans, 1983), 16-17을 보면, 성서 이외의 일반 사본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받을 수 있다.

31) 옥시링쿠스에서 발견된 신약사본은 46개인데, 이 가운데는 아직 그레고리 번호를 받지 못한 4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미 공식적으로 등록된 118개 가운데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는 42개가 된다.

32) 옥시링쿠스 파피루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www.papyrology.ox.ac.uk/POxy/oxyrhynchus/parsons4.html>)

<주요어>(Keywords)

파피루스, 단편사본, 방법론, 옥시링쿠스, 본문비평.

Papyrus, Fragment, Methodology, Oxyrhynchus, Textual criticism.

<참고문헌>(References)

-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신약논단』 12권 (2005년 봄), 157-196.
- 민경식, “마태복음서 21장 44절과 P104 (P. Oxy. 4404)”, 『종교와 문화』 11호 (2005), 105-118.
- 민경식, “그리스어 신약성서 사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사상』 (2006년 2월호), 134-142.
- 민경식, “왜 같은 사본은 하나도 없는가?” 『기독교사상』 (2006년 3월호), 138-147.
- 민경식, “파피루스 사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사상』 (2006년 5월호), 140-151.
- 민경식, “대문자 사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사상』 (2006년 6월호), 174-184.
-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 Aland, B., “Kriterien zur Beurteilung kleinerer Papyrusfragmente des Neuen Testaments”, Denaux, A. e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Festschrift J. Delobel*,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16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 Aland, K. and Aland, B.,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Colwell, E. C., “Method in Evaluating Scribal Habits. A Study of P45, P66, P75”, *Studies in Methodology in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Leiden: Brill, 1969, 106-124.
- Comfort, P. W. and Barrett, D., eds., *The Text of the Earliest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New and Complete Transcriptions with Photographs*,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2001.

- Epp, E. J., “The Significance of the Papyri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New Testament Text in the Second Century: A Dynamic View of Textual Transmission”, Epp, E. J. and Fee, G. D., eds.,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Studies and Documents 45, Grand Rapids: Eerdmans, 1993, 274-297.
- Ehrman, B., 『성경왜곡의 역사』, 민경식 역, 서울: 청림출판, 2006.
- Fee, G. D., *Papyrus Bodmer II (P66): Its Textual Relationships and Scribal Characteristics*, Studies and Documents 34,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1968.
- Gamble, H. Y., *Books and Readers in the Early Church: A History of Early Christian Texts*,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 Horton, C., ed., *The Earliest Gospels: The Origins and Transmission of the Earliest Christian Gospels - The Contribution of the Chester Beatty Gospel Codex P45*, London: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 Hurtado, L. W., *Text-Critical Methodology and the Pre-Caesarean Text: Codex W in the Gospel of Mark*, Studies and Documents 43, Grand Rapids: Eerdmans, 1981.
- Martini, C. M., *Il problema della recensionalità del papiro Bodmer XIV*, *Analecta Biblica* 26,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66.
- Metzger, B. M.,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4.
- Metzger, B. M.,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Grand Rapids: Eerdmans, 1983.
- Min, K. S.,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3./4. Jahrhundert): Edition und Untersuchung*, *Arbeiten zur Neutestamentlichen Textforschung*, vol. 3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 Roberts, C. H. and Skeat, T. C., *The Birth of the Codex*,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Royse, J. R.,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Th. D. Dissertation, Graduate Theological Union, Berkeley (1981) =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Grand Rapids: Eerdmans, 2007.

Streeter, B. H., *The Four Gospels: A Study of Origins: Treating of the Manuscript Tradition, Sources, Authorship, and Dates*, London: Macmillan, 1924.

Westcott, B. F. and Hort, F. J. A., *The New Testament in Original Greek*, vol. I, Cambridge; London: Macmillan, 1881.

<Abstract>

The Significance and Vista of the Oxyrhynchus Papyri

Dr. Kyoung-Shik Min
(Yeonse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significance of researches in New Testament fragment manuscripts including Oxyrhynchus papyri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es according to the fruit of our long scholarship in this field.

The Oxyrhynchus Papyri were first excavated more than 110 years ago in Egypt by Grenfell and Hunt and have continually been published until the present. Until this discovery came to light, we had no direct access to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of the first three centuries. It was this epoch-making discover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ich opened the door to the New Testament text before the time of Constantine, namely the door to the text of the third, and even to the second century AD.

Oxyrhynchus Papyri, however, were neglected as text critical sources, because these are all small fragments and no proper text critical method to analyze fragments had been developed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Consequently it has been believed that they are subject to restriction in restoring the “original” text. They were considered only as an evidence which supports the already reconstructed New Testament text based on the majuscule manuscripts of the 4th century and the subsequent ones.

A recently developed method, however, threw a new light upon text critical researches into fragments. The method showed that one of the recently published Oxyrhynchus papyri preserved a very strict text of the earliest stage (P104).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n this small fragment, we can even take a whole verse out of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Mt 21:44), which is placed in brackets in the critical edition (NTG²⁷).

The already published Oxyrhynchus papyri, on the one hand, hold the majority of the early New Testament Greek papyri. On the other hand, they are only a small part of the discovery (ca. 10 %). Therefore ten times as many New Testament Oxyrhynchus papyri are expected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Researches into these materials will certainly expand the horizon of our understandings of the history of the text and help to restore a text which is closer to the “original.”